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0/8(水)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0/7(火) 11:00부터

문의 : 유통산업정책실 이영준 실장(6050-1510), 강수정 대리(6050-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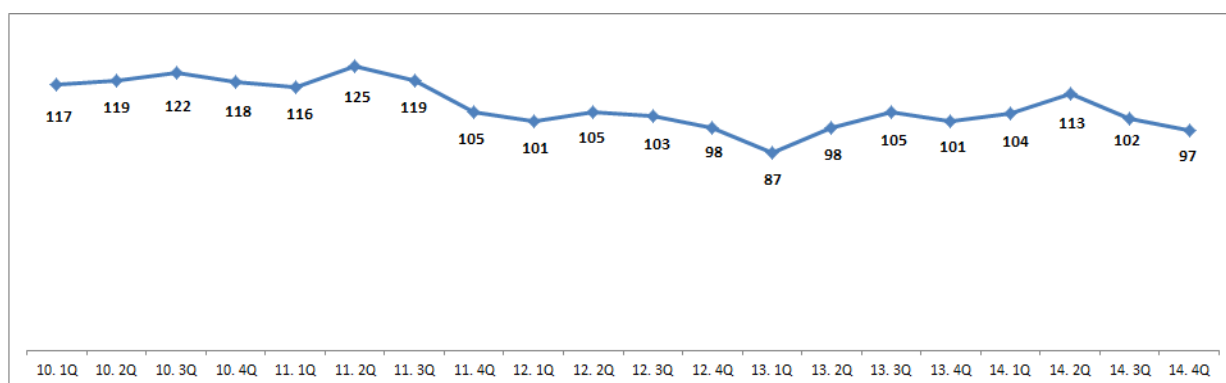
4분기 유통업체감경기 '97' ... '13 2Q 이후 첫 기준치 이하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FBSI) : 3Q '102'→ 4Q '97'
- 홈쇼핑(126), 인터넷쇼핑몰(111)은 '맑음' ... 편의점(90), 슈퍼마켓(85) 고전 예상
- 애로사항으로 '소비심리 위축 따른 매출 부진'(40%), '수익성 하락'(20%), '업체간 경쟁 심화'(10%) 순

4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3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대비 5포인트 떨어진 '97'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망치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은 98을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대한상의는 “추석 특수으로 인해 반짝 활기를 띄었던 소비심리가 경기회복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다시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경기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저가실속형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채널은 선방할 것으로 보이나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채널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업체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홈쇼핑(126)과 인터넷쇼핑(111)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가운데 편의점(90)과 슈퍼마켓(85)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4분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업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종합	117	119	122	118	116	125	119	105	101	105	103	98	87	98	105	101	104	113	102	97
홈쇼핑	104	133	129	134	102	122	118	109	115	139	134	138	77	104	104	148	106	126	120	126
인터넷쇼핑몰	116	115	120	114	104	124	114	134	108	114	114	103	105	115	113	105	104	111	112	111
백화점	116	116	120	121	134	129	109	105	96	107	109	102	95	109	113	108	117	122	100	99
대형마트	122	122	126	124	131	131	130	102	103	97	87	87	76	82	98	92	108	112	97	91
편의점	109	120	124	105	72	118	125	112	105	105	112	98	81	93	105	90	86	104	100	90
슈퍼마켓	120	115	116	106	95	114	111	96	91	97	103	96	83	94	97	106	83	101	96	85

홈쇼핑(126)은 동절기 특수와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시장에 탄력을 받아 당분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은(111)도 경기 침체에 따른 알뜰 소비심리 확산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백화점(99)은 상대적으로 일렸던 추석 특수가 사라지면서 4분기 전망을 낮게 봤다. 대한 상의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중산층 이상이 점점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백화점에서의 소비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휴업 등 규제가 지속되고 신규출점 증가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91)와 슈퍼마켓(85)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슈퍼마켓은 자체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여온 편의점(90)은 동절기 진입에 따른 유통인구 감소, 음료·아이스크림 등 효자 품목의 매출 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4분기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4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유통기업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0.0%)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19.5%), ‘업체간 경쟁 심화’(9.6%), ‘유통 관련 규제’(8.1%) 등을 차례로 들었다. <‘업체내 경쟁심화’(5.5%), ‘인력부족’(3.7%), ‘자금사정 악화’(3.2%), ‘상품가격 상승’(2.4%), ‘기타’(8.0%)>

김경중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침체,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모바일 쇼핑, 온·오프라인 채널은 융합한 옴니채널 등 유통채널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기회로 떠오른 역직구 시장 등을 적극 공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 조사 개요 >

- ☐ 조사기간 : 8/25(월)~9/19(금)
- ☐ 조사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소매유통업체 937개사
- ☐ 조사지역 : 전국 7대 도시
-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